

5563.7
4024.1
v.2

蘆溪先生文集

三卷終

BERKELE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卷三

Carpentier

蘆溪先生文集卷之三

歌

太平詞

戊戌季冬釜山屯賊乘夜奔潰時公佐左兵使成允文幕兵使聞即率軍馳到

釜山留十餘日後還到本營明日使之作此歌

나단히偏小하야海東에 넘려셔도箕子遺風이古
今업시淳厚하야二百年來에禮義을崇尚하니衣
冠文物이漢唐宋이되야허니島夷百萬이一朝에
衝突하야億兆驚魂이 칼빛을 조차나니平原에사
하현止외 두근노와잇고雄都巨邑은豺狐窟이되
앗거늘淒涼 玉輦이蜀中으로되와드니烟塵이

아득하야 日色이 열위셔니 聖天子神武하야 一
怒를 크게 내야 平壤羣兇을 一劍下의 다버히고 風
驅南下하야 海口에 더져 두고 窮寇을 勿迫하야 몇
몇히 틀디 내연고 江左一帶에 孤雲갓흐우 리물이
偶然時來예 武侯龍을 幸히 만나 五德이 必근 아래
獵狗목이 되야 射하 英雄仁勇을 喉舌에 射겨 시니
炎方이 稍安하야 고 士馬精強하야 射니 皇朝一夕에
大風이 다시 이니 龍又흐 將帥와 구름又흐 勇士들
이 旌旗蔽空하야 萬里에 이어서 니 兵聲이 大振하
야 山岳을 射엇는 兵房御營大將은 先鋒을 引導

하야賊陣에突擊하니疾風大雨에霹靂이스치호
되清正小豎頭도掌中에잇것마호天雨為祟하야
士卒이疲困하늘견근兵解圍하야士氣을쉬우더
가賊徒一掃潰하니못다잡아말년제고窟穴을구
어보너구든덧도하다마호有敗灰燼하니不在險
을알니모다上帝聖德과吾王沛澤이遠延업
시미취시니天誅猶賊하야仁義를돕호任다海不
揚波이젠가되기로라無狀하우리물도臣子되야
이셔더가君恩을못감흡하敢死心을가져이셔
七載를奔走하太平을늘보완디고投兵息戈하

고細柳營도라 들제太平簫노픈솔의예鼓角이엇
디시니水宮김흔곳의魚龍이다우노는太平龍旗偃塞
하야西風에빛거시니五色祥雲一片이半空에떠
러딘듯太平模樣이더욱하나반가을사揚弓舉矢
하고凱歌를아뤄오니爭唱歡聲이碧空에얼히노
다三尺霜刃을興氣에위들러메고仰面長嘯하야
춤을추며이러셔니天寶龍光이斗牛間의소이노
다手之舞之足之蹈之蹻노蹻노즐거오니歌七德
舞七德을그칠줄모르다人間樂事이又하니
또인노가華山이어디오이말을보내고져天山이

어디오이 할을 노치거자이겐야호을일이忠孝一
事선이로다嘗中에일이업션진검드러누어시니
못노라이날이어너적고羲皇盛時를다시본가너
기로라天無淫雨호니白日이더우물다白日이불
그니萬方에비최노다處處溝壑에호터잇던老羸
드리東風新鷲什치舊巢을차자오니首邱心에
취아니반더호리爰居爰處에즐거음이엇더호노
子遺生靈들아 聖恩인줄아느스다 聖恩이기
픈아리五倫을받쳐사타教訓生聚이라절로아니
닐어가랴天運循環을아옴게다하느님아佑我邦

國言作萬世無疆
늘리소서唐虞天地에 三代日月
비최소서於萬斯年에 兵革을 그치소서 耕田鑿井
에 擊壤歌을 불니 소서우리도 聖主을 뵈오묘고 同
樂太平호오리다

蒞堤曲

蒞堤地名在龍津江東距五里許即漢陰李相公江亭所在處也公代相公作

此

어리고拙호몸에 榮寵이已極호니 鞠躬盡瘁호야
죽어야 말너너겨 夙夜匪懈호야 밤을 잊고 思度호
들판솔의 현불로 日月明을 도을 논가 尸位伴食을
뜻히나 지내연고늘고 病이 드러 骸骨를 빌리실시

漢水東併흐로訪水尋山호야龍津江디너을나蒞
堤안도타드니第一江山이임지업시브려는다平
生夢想이오타호야그러턴지水光山色이넋호查
다시본호無情호山水도有情호야보이는다白沙
汀畔의落霞을빛기셔고三三五五히섯기호는더
白鷗야너드려말못자늘너디마타사타이各區勝
地을어디타드려현다碧波一洋洋호니渭水伊川
아닌게오層戀이兀兀호니富春箕山아닌게오林溪
路黑호니晦翁雲谷아닌게오泉甘土肥호니李愿
盤谷아닌게오徘徊思憶호디아모던줄내물내라

楚之汀蘭은清香이郁郁하야遠近에이어잇고南
湖東溪에落花一マ도슴겨거늘荊棘을헤혀드러
草屋數間지어두고鶴髮을되지고終孝를하려너
겨爰居爰處하니此江山之임재로다三公不搜此
江山을오느스아타고야어즈러운鷗鷺와數업스
麋鹿을내흔자거너려六畜을삼아거든甘업스清
風明月은질노已物되야시니놈과다룬富貴는이
호목애マ자쇼야이富貴가지고져富貴부름소냐
부름줄모르거든사귄줄알리닌가紅塵도머러가
니世事을드스볼소냐花開葉落아니면이년節을알

던고中隱菴외 뭍소리谷風의 첫거느다梅窓의
이르거든수睡를스시야病目を여더보니밤비에
스윈가지暗香을보내여봄천을알외느다春服을
쳐엄납고麗景이더딘저의靑藜杖빛기취고童子
六七불너내야속납난잔쇠에足容重계후거러淸
江의발을잇고風乎江畔하야興을타고도라오니
舞雲詠而歸를저그나부물소나春興이이러거든
秋興이라저글년가金風이瑟瑟하야庭畔애치너
부너더괴입치는소리먹은귀를놀리느다正值秋
風을中心에더욱반겨낙뒤을돌러메고紅蓼을헤

혀도러小艇을글러노화風帆浪楫으로가는디로
더더두니流下前灘하야淺水邊에오도고야夕陽
이거인적의江風이짐즉부러歸帆을보너는듯아
두도前山도忽後山의보이누다須臾羽化하야蓮
葉舟에올나는듯東坡赤壁遊山돌이내興에엇지
더며張翰江東去山돌오늘景에미蒼년가居水에
이러거든居山이라偶然하야山房의秋晚저늘幽
懷를글디업서雲吉山돌길히막디집고쉬여올나
任意逍遙하야猿鶴을벗을삼아喬松을비기여四
隅로도타보니天工이工巧하야뵈빛출신이누가

흰구름알근너는는이떠어나라노푸막나지막峰
峰谷谷이面面에버러서든서리친신남기봄꽃도근
불거시니錦繡屏風을疊疊이둘너는듯千態萬狀
이僭濫하야보이느다힘세이다토면내분에올가
마는禁하리업습시나도두고즐기노라하물더南
山너린곳히五穀을가초심거먹고못남아도곳지
나아니하면내집의내밥이그맛서엇더하노採山
釣水하니水陸品도잠산크다甘旨奉養을足다사
할가마는鳥鳥舍情을범고야말넷노라私情이이
터하야아직물러나와신들罔極호 聖恩을어니

刻에이질년고犬馬微誠은白首에야더옥김다時
 時르어리드러 北辰을브라보니남모르노는눈물
 이무사미예다졌노다이는물보전된참아물너날
 사마노곳두한不才에病古나디터가고글堂老親
 은八旬이거의거든湯藥을그치며定省은뵈을년
 가이저야어늬스예이山밖의날오소냐許由의셔손
 귀예老萊子の오슬입고암외예저술이품은쇠되
 도록함의외셔늘그리다

陋巷詞

公從遊漢陰相公相公問公山居窮苦之狀乃述已懷作此句

어리고透潤호산이니우히더니업다言凶禍福을

하날의 부처두고陋巷김준곳의草幕을 지어두고
風朝雨夕에 석은 덥히 험히 되야 셔 흙밥 닷 흙粥에
烟氣도 하도 할샤 설데 인 熱冷케 빈 비 식 일 뿐이로
다生涯이러하다 丈夫 貨을 움길년 가 安 貧 一 念을
적을 망정 품고 이셔 隨 宜로 살려하니 날모 조차 齟
齬하다 又 음히 不足 거든 봄이라 有 餘 하여 주머니
부엌 거든 瓶이라 담겨시라 貧 困 入 生이 天 地 間
의 나뭇이타 飢 寒이 切 身하다 一 丹 心을 이 질는 가
奮 義 忘 身 하야 죽어야 말녀니 於 橐 于 囊의 蟲 蟲
이 모와 너코 兵 戈 五 載에 敢 死 心을 가져 이셔 履 尸

涉血^하야^야 百戰^백을^을 지^지니^니 연^연고^고 一身^일이^이 餘暇^여의^의 사^사 一
 家^가를^를 도^도라^라 보^보랴^랴 一奴^일長^장鬚^수는^는 奴主^{노주}分^분을^을 이^이 족^족거^거든^든 告
 余^여春^춘及^및을^을 어^어니^니 사^사이^이 심^심각^각하^하리^리 耕^경當^당問^문 奴^노山^산들^들늘^늘든^든
 려^려물^물투^투는^는고^고 躬^공耕^경稼^가穡^삭이^이니^니 分^분인^인 誰^누알^알리^리로^로다^다 莘^신野
 耕^경叟^수와^와 墮^두上^상耕^경翁^옹을^을 賤^전타^타하^하리^리 업^업것^것다^다는^는아^아므^므터^터 같
 고^고 전^전들^들어^어니^니 소^소로^로 같^같로^로 손^손고^고 무^무旣^기太^태甚^진하^하야^야 時^시節^절이
 다^다느^느 租^주稅^세 西^서疇^수 농^농흔^흔 논^논애^애 잠^잠산^산긴^긴 晷^규비^비에^에 道^도上^상 無^무源
 水^수을^을 반^반만^만한^한디^디히^히 두^두프^프소^소하^하는^는적^적 芻^초마^마하^하고^고 惡^악심^심이^이하^하
 는^는 말^말삼^삼親^친切^적호^호타^타니^니 긴^긴 집^집의^의 달^달업^업은^은 黃^황昏^昏의^의 허^허위^위허
 위^위다^다라^라가^가서^서 구^구디^디다^다도^도 門^문밖^밖피^피어^어두^두히^히 혼^혼자^자서^서 큰^큰

기침아함이를良久토묵후온後에어화피뉘신고
廉恥업산니옴노타初更도거원디귀엇지와겨신
고年年에이러후기苟且흔줄알건만은쇼업스窮
家애혜염만하왓삼노타공후나나갑시나주엄즉
도후다마는다만어제밤의거빈집저사람이무불
근수기雉을玉脂泣게구어니고간이근三亥酒을
醉토묵勸후거든이러한恩惠을어이나나갑흔년
고來日로주마후고큰言約후야거든失約이未便
후니사설이어러와라實爲그러후면혈마어이할
고헌먼덕수기스고측업스집신에설피설피물너

오나 風彩저근 形容내기 즈칠 畚이로다 蝸室에 드
 러간 돌잠이와 사누어시랴 北窓을 비겨 안자시비
 물기 다리나 無情호 戴勝은 이니 恨을 도우느다 終
 朝惆悵호며 언들흔 바라보니 즐기느 農歌도 興업
 서들리느다 世情모문한 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아흔온져 소위느 벗보님도 도흔세고 가시영권묵
 은 밧도 容易게 擘면 마느 虛堂半壁에 슬디 업시 擘
 려고야 春耕도 기의이다 우리쳐더더 두자 江湖호
 뉘을 汗언지 도오너너니 口腹이 爲累호 아이기비
 이저쳐다 瞻彼淇澳호 緜竹도 하도 할사 有斐君

수들이아낙디하나 빌려스라 蘆花 白鳥 明月 清
風 벗이되야 남치업스 風月 江山 絶로 眞로 늘그
리라 無心 白鳥 야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토 업
슬 스다 문인가 너기 모타 無狀 하이 올애 부스 志 趣
이 스리 마느 두세 이 령 밧 논 블 다투 더 더 두 고 이
시 면 粥 이 오 겹 시 면 굴 물 앙 정 남 의 집 남 의 거 손 전
혀 부러 말 렷 으라 니 貪 賤 슬 히 너 거 손 을 헤 다 물 너
가 며 남 의 富 貴 을 너 거 손 을 치 다 나 아 오 랫 人 間
어 니 일 이 命 밧 디 삼 거 시 리 貪 而 無 怨 을 어 렵 다 하
건 마 느 니 生 涯 이 터 호 디 설 은 뜻 은 업 노 왜 라 簞 食

瓢飲을이도못히너기르라平生훈뜻이溫飽애는
업노왜라太平天下애忠孝를일을삼아和兄弟信
朋友외다하리누이시리그밤괴남은일이야삼긴
디로살렷노라

早红柿歌

辛丑九月初漢陰相公饋公
早红柿公曰時物有感而作

盤中早紅柿이고아도보이느다
袖子안이타도품
임즈도하다마는품어가반기리
업슬시글노설위
하느이다

王祥의鯉魚잡고孟宗의竹筍헐거
김던멀리희드
魯老萊子의오솔이고一生애
養志誠孝를曾子스

치하리이다

萬句을늘려내야길게길게노을되아九萬里長天
에가노히를자바미야北堂의鶴髮雙親을더디늘
게하리이다

羣鳳모다신의외가마기드러오니白玉사헌곳애
돌흐나갓다마는두어라鳳凰도飛鳥와類시니모
히는듣엇더하리

○ 或疑曲何為而作也昔在辛亥春曾祖考漢陰相
公退老與朴蘆溪仁老述懷之曲也世代既遠此曲
無傳恐其泯沒於後竊嘗慨然於心者稔矣不肖孫

久文是歲庚午春除永川郡守公即茲土人也其由
尚今流傳其孫亦且生存公餘月夕以其孫進善命
歌而聽之恍若後生叨陪杖屨於龍津山水之間愴
懷益激感淚自零并與陋巷及短歌四章而付諸剖
剗氏以圖廣傳焉時是年三月三日也板在本郡而今失

船上歎

時國家尚憂南隣選公統舟師赴防釜山公臨船作此曲

言且病든몸을魚師모보니실시乙巳三夏에鎮東
營營러오니關防重地예病이급다안자실략一長
短비기하고兵船에구테올나勸氣瞋目호야對馬
島을구어보니브담조친黃雲은遠近에사허잇고

아득호 滄波는 간하늘과 호 빛칠의 船上에 徘徊호
며 古今을 思憶호고 어리미 친 懷抱에 軒轅氏를 애
드노라 大洋이 茫茫호야 天地에 둘러시니 眞실로
비아니면 風波萬里 밖이어니 四夷 엇볼년고 무심일
호려호야 비 못기름 비 못호고 萬世 千秋에 業은 큰
弊되야 普天之下에 萬民 怨길우나다 어즈버시드
라니 秦 始皇의 타시로다 비 비루 잇다 호나 倭를 아
니삼기던들 日本 對馬 島로 빈비 絶로나올년가 누
말을 이더득고 童男 童女를 그디도록 드러다가 海
中모든 심에 難當 賊을 기쳐 두고 痛憤호 羞辱이 華

夏에다잇나다長生不死藥을얻이나어더니여萬
里長城을히사고몇萬年을사도현교를더로죽어
가니有益을줄모르로다어즈버싱각하니徐市等
이已甚하다入臣이되야셔는命도하느것가神仙
을못보거든수이나도라오면舟師이시럼은전혀
업게삼길렀다두어라旣往不참라일너무엇하로
소니속절업는是非를후리쳐더더두자潛思覺悟
하니내뜻도固執코야黃帝作舟車는원줄도모르
로다張翰江東에秋風을 만나신들扁舟곳아니타
면天淸海闊하다어니興이절로나며三公도아니

빛골第一江山에浮萍又호漁父生涯을一葉舟아
니면어디부처도힐노고일언닐보던된비삼긴制
度야조妙호덧호다마는엇디호우리물은노는호
호板屋艀을晝夜의빛기트고臨風咏月호디興이
전허업노게오昔日舟中에호杯盤이狼籍터니今
日舟中에호大劍長鎗은이로다호가지비언마는
가진비다라니其間憂樂이서로호지못호도다時
時로멀이드러 北辰을보라보며傷時老淚를天
一方의디이노다吾東方文物이漢唐宋에디라마
는 國運이不幸호야海醜兇謀에萬古羞을안고

이셔百分에흐가지도못시셔브러거든이몸이無
狀흐둔臣子一되야이셔다가窮達이길이달라몬
되읍고늘거신둔憂國丹心이야어니刻애이즐년
고慷慨계운壯氣는老當益壯하다마는도고마는
이몸이病中에드러시니雪憤伸寃이어려올듯하
건마는그러나死諸葛도生仲達을멀리쫓고발업
右孫臍도龐涓을잡아거든하믄며이몸은手足이
乏자잇고命脉이이어시니鼠竊狗偷을저그나저
흐소나飛般에둔려드러先鋒을거치면九十月霜
風에落葉가치헤치리라七縱七禽을우린둔못흐

것가蠢殺鳥夷들이수이소降하야소라降者不殺
 이니너를구티殲滅하야곰 王聖德이欲并生하
 시니라太平天下에堯舜君民되야이셔日月光華
 는朝復朝하야거든戰船트던우리몸도漁舟에唱
 晚하야秋月春風에높히베고누어이셔 聖代海
 不揚波로다시모려하노라

獨樂堂

在慶州玉山即晦齋李先生所
居堂也公往尋遺蹟自作此歌

紫玉山名勝地에獨樂堂이蕭灑흐름들민디오태
 로되이몸이武夫로仕海邊事一孔棘거늘一片丹
 心에奮義를무내하야金鎗鐵馬로餘暇업시奔走

터가中心景仰이白首에더우립히杖屐鞋모오
남사左자오너峰巒은秀麗호야武夷山이되여맛
고流水는盤回호야後伊川이되였는다이러호호
區에임지어이업도현고一千年新羅와五百載高
麗에賢人君子들이만히도지닌마는天擘地秘호
야我先生이기치도다物各有主어든드도리이
실소나靑蘿를헤혀드터獨樂堂을여터너니幽閑
景致는전홀디노야업니千竿脩竹은碧溪조차들
너잇고萬卷書冊은四壁의사혀시니顔魯이在左
호고游夏는在右호호호尚友千古호며吟詠을일으

삼아閒中靜裏에 潛思自得하야 혼자 즐기하시듯
다獨樂이 일흥稱情하즐귀 누알리 司馬溫公獨樂
園이 아무려 조타호도其間真樂이야이獨樂에 더
모손가尋眞을 못니하야 養真菴의 노래드러臨風
靜者하니니 侯도瑩然하다 退溪先生手筆이 真得
인 줄알리모다 觀魚臺니려오니 室온듯호호 盤石의
杖屨痕이 보이노닷 手栽長松은 拭拭출려여시니
依然物色이 그리더우반가올샤 神清氣爽하야 芝蘭
室에 든듯하다 多少古跡을 보며 문득 心각하니 層
巖絶壁은 雲母屏이 절로되야 龍眠妙手로 그린듯

시버리잇고百尺澄潭에 天光雲影이 일희여 昏거
시니 光風霽月이 부는듯 비시는듯 鳶飛魚躍을 말
업은 벼을 삼아 沉潛翫索하야 聖賢事業하시닷다
清溪를 빛기건너 釣磯도 宛然호샤 문노라 白鷗들
아비 날을 아나 산다 嚴子陵이 어니히에 漢室로가
단말고 苔深磯上에 暮烟안겨져라 春服을 시로
입고 詠歸臺에 올라오니 麗景은 古수업서 清興이
절로하니 風乎詠而歸든오 님다 서본듯하다 臺下
蓮塘의 細雨삼은지니가니 碧玉스스하너분남혜호치
니니 明珠로다 이러호 清景을보암즉도하다 마는 瀛

溪가신後에 몇몇히 물다 년게 오依舊清香이다
혼자남아고야紫烟이 빗긴아래瀑布를 멀리보니
丹崖노준곳히긴니히길너노듯香爐峰기어디오
廬山이예뜻던가澄心臺구어보니鄙吝엇腦襟이
새로운듯하다마는寂莫空臺에외로이안자시니
風清鏡面의山影만잠더잇고綠樹陰中에윈갓시
슬피운다徘徊思憶하더真跡을다차즈니濯纓臺
淵泉은古수업시말다마는末路紅塵에사몸마다
紛競거든이리조호清潭에濯纓하늘즐기누알리獅
子巖노피올라道德山을바라보니玉蘊含輝는어

제론덧하다 마는 鳳去山空하니 杜鵑만나 죄운다
 桃花洞는 린물리 不捨晝夜호야 落花조차 흘러오
 니 天台山가 武陵인가 이싸히어던게오 仙蹤이아
 득하니 아모던 줄모르로다 仁者도 아년 몸이므슴
 理를알리 마는 樂山忘歸호야 奇巖을다시 비겨 川
 原遠近에 景致를살펴보니 萬紫千紅은비 단빛치
 되어잇고 泉卉群芳은 谷風에 놀러오고 山寺 鐘聲
 은 구름밭의 들리는다 이러호 形勝을 范希文의 文
 筆인들다 서니 기쉬울닌가 滿眼風景이 客興을도
 오는듯 任意逍遙호며 짐주더디도라오니 舉目西

岑의夕陽이 거의로다獨樂堂고쳐올나左右를살
려보니先生風彩을親히 만나뵈옵는듯義塲의儼
然하야俯仰歎息하야當時하시던닐다시공思想
하니明窓靜几에世慮을이즈시고聖賢書의著意
하야功效를일위니여繼往開來하야吾道를받지
시니吾東方樂只君子는다문인가너기로라하를
여孝悌를本을삼고忠誠을본히니여 聖朝의나
아들러稷契의몸이되야唐虞盛時를일일가바라
더가時運이不幸하야忠賢을遠斥하니듯너보
나니深山窮谷엔들귀아니悲感하디七年長沙의

卷之三十一
一
三

不見天日言고閉門深省言사道德만 닦고 시니邪
不勝正이라公論이 절로이러尊崇道德을 사탐마
다 흘려 줄 아라江界는 謫所로되遺化를 못니이저寤
巷絶域의 桐宇조차서위시니士林趨仰이야더욱
닐러무엇하티紫玉泉石우희書院을 디어두고濟
濟靑襟이絃誦聲을 이어시니瀛洛羣賢이이따희
되왔는듯來仁堂도마올타體仁廟도嚴肅할사千
秋血食이偶然아닌일이로다追崇尊敬을 할소록
못니하야文廟從享이그더우盛事로다吾東方文
憲이漢唐宋에비그로외紫陽雲谷도어즈버여그

真

로다洗心滌罪된물에德澤이이어흐러龍湫같은
곳에神物조차居셔니天工造化의더욱奇異
코야無邊光景을다찾기어려운시樂而忘返호야
旬月을淹留호며固陋호이몸에誠敬을넘이호야
先生文集을仔細히살펴보니千言萬語다聖賢의
말삼이라道脉工程이日月갓치분가시니어드은
밤길히明燭잡고엔덧호다진실도이遺訓을腔子
裏에가득담아誠意正心호야修誠을넘게호면言
忠行篤호야사됨아다어질로다先生遺化至極호
이엇더호노嗟哉後生들이趨仰을더욱높히萬世

千秋에 산과 들이 바리사타 天高地厚도 有時盡하
러니와 萬樂堂 淸風은 가업실가하노라

嶺南歌 乙亥李相國謹元按節嶺南布德室化
道一如一家當遠民皆感息而頌密

故公作歌
以讚美之

嶺南千里外에 去辰變後나 은百姓賊路初頭에이

니世業가질닌고 遺墟蕪沒하디 草屋數間더어 두

고 陳荒薄田을가다 얼미갈리먼고 又多事하디

賦役이나 積은닌가 朝夕도 못내이어 飢寒에늘거

실들戀主丹心이야어니 刻애이준닌고 白日가

하 聖明이萬里밖을다보시니 深仁至德으로 測

但宣侯을 두샤 巡相閣下를 特別이 보내시니 嶺南
殘民이 再生秋아닌은 가 白玉 又치 물그시고 河海
又치 宣侯에 明德新民을 一身에 일을 삼아 九經
八目을 誠敬中에 부쳐 두고 稷契皋陶 몸이 되야 致
君堯舜을 보옵고야 알타니 거 承流宣化호야 養民
宣侯을 두샤 七十州 一家 삼아 父母心을 가지시고
어미 일흠을 모든 赤子如保恩을 넘히시니 大旱에 百
穀이 時雨를 만나느닷 涸轍枯魚이 渴을 소애 잠겨
는 兵千千萬萬家에 德化 곧 오미 처시니 不世情東
風이 宣侯 方로 부는 듯다 相國恩波는 천홀디 되야

업니農耒을勸하시며軍政도다그시니男耕女織
에萬民이安業하고弓矢斯張하시야武備도모갓
다하믄며氷玉精神에霽月腦襟품으시고盡心國
事하시야忠誠을다하시며學校明倫을政事中大
本삼아斯文一事을已任을삼으시니吾道幸甚이
時運이아니온가政治이러커니위아니感激하리
列邑守令이相國의法을밧아愛民一心이遠近업
사다갓하니엇거제石壕村이武陵桃源되엇는가
竹院松牕애絃誦聲을이어거늘綠楊亭畔에擊壤
歌음블러니니無懷氏적사람인가爲天氏似百姓

인가唐虞盛時을오닐다서본듯하다許多好訟
는어드러로도간게오獄訟이止息하니囹圄空虛
하단말가民心이感化하야절노절노그러도다必
也使無訟을千載下에보아고야公庭이無事하니
村落도일이업다多少行人은男女分明異路하교
西疇處處에耕者讓畔하느피야못노다布穀아이
任히어디오어즈버이몸이周界에드러온드라相國
風化아미도그지업니召公의德化는겨寇君一年
빌고제라嶺南士民들이네말삼仔細듯소相國
恩德을못니즐흔닐하시齊統를만히사고真彩를

가 초어더相國風度を司馬溫公畫像가치無限無
限그러니야嶺南千萬家애壁上의부쳐두고中心
에그리온적이어든보옵고자하노라

蘆溪歌

白首에訪水尋山太晚하늘줄알건마는平生素志를
뱀고야말라너거赤鼠三春에春服을새로입고竹
杖은鞋모蘆溪입흔골이헝허마참차즈오니第一
江山이넘지업시부러는다古往今來에幽人處士
들이만히도잇것마는天慳地秘하야너를주랴남
거섯다踏踏良久타가夕陽이거인적의陟彼高岡하

야四隅로도라보니玄武朱雀과左右龍虎도그린
듯시갓갓야山脈및천아리歲風向陽하디靑蘿
물허허드러數椽蝸室을背山臨流하야五柳邊에
디어두고斷崖수尺이가던龍이머무는듯江頭에
들러터늘草草亭하두間을구름선간슬아리바휘디
져여러니니千態萬狀이아마도奇異코야峰巒은秀
麗하야富春山이되야잇고流水는盤回하야七里灘
이되야거든十里明沙는三月눈이되엿는다이湖山
形勝은전졸디되야업디巢許도아닌몸애어니節
義알리마는偶然時來예이名區임지되여靑山流

水와明月清風도말업시절로절로어즈러은鷗鷺
와數업은麋鹿도말업시절로절로沮溺가던묵은
밭과嚴子陵의釣臺도말업시절로절로山中百物
이다절로已物되니子陵이들이오沮溺이서히로
다어즈버이몸이아마도恠異코야八山當年에隱
君子되얏는가千古芳名을이흐몸에傳토고야人
間의이일힘이人力으로일월소나山川의靈異호
야도아닌가너기로라中心이瑩然호야世慮절로
그쳐디니光風霽月이腔子裏에품엇는듯浩然真
趣남로새롭호노와라飛禽走獸는六畜이되얏거

늘달알의 피기 낙고 구름속의 빛을 가라 먹고 못나
마도 그 칠적은 업노 왜라 無盡호江山과 許多호閑
田은 分給子孫호려이와 明月清風은 논호 유기어려
올서才與不才에 養志호는 아 들호 아 太白淵明證
筆에 永永別給호렷로라 내의 이말이 透濶호듯호
것마는 爲子孫詩호는 다만 인가 너기로라 佐어린 이
몸은 仁者도 아니 오 智者도 아니로되 山水에 癖이
이러늘 글스록 더욱호니 져 貴호는 三公과 이 江山을
빛골소냐 어리미 친이 말을 우으리도 하렷마는 아
므리우어도 나호는 丘히 너기 노라호를며 明時에 빈

린몸이 허울닐이아 조업서世間名利란든구름본
 덧하고無思無慮호야物外心만품고이셔이늬生
 涯을山水間의부터두고春日이채긴제낙디를비
 기쥐고葛巾布衣로釣臺에건디오니山雨는잠한
 개고六陽이썩오는디물근바람더디오니鏡面이
 더욱발다김흔돌이다보이니피기數를알리로다
 피기도나치이거늘닐즐모르거든차마엇디낙글
 년고罷釣徘徊호며波心을구어보니雲影天光은
 얼크여슴겨는디魚躍于淵을구름우히보아고야
 하문득驚恍호야俯察仰觀호니上下天이宛然호

다一陣東風에기엇진漁笛이놈히부러보너던고
江天이寥寂하디반가와도들리너다臨風倚杖하
야左右로도라보니臺中清景이아마도蕭灑코야
물도하늘갓고하늘도물갓하니碧水長天은하빛
티되얏거든물가애白鷗는오는듯가는듯극찰줄
을모르너다巖畔山花는錦繡屏이되야잇고澗邊
垂楊은草綠帳이되야거든良辰佳景을내흔자거
너리고正值花時를虛度치말너너겨아희불너하
는말슴이深山窮谷애海錯이아보로소너살진고
사리香氣는當歸草를猪脯鹿脯相間하야크나큰細

柳筍어洽足히다마두고鮓魚膾初味에訥魚生雉
 서거구어빛빛치드리거든尾樽에白酒를박잔의
 가득부어흐잔도흐잔醉도록먹은後에桃花는紅
 雨되야醉面에셀리는디苔磯너븐돌애놓히베고
 누어시니無懷氏적사름인가葛天氏씨百姓인가
 羲皇盛時를다시본가너기로라이힘이누힘고
 聖恩이아니신가江湖애물디신들憂 君一念이
 야어니刻애이즐는고時時로머리드리 北辰을
 비라보고눈모르눈눈물을天一方의디이느다一
 生애품은뜻을비움느다하느님아山平海渴도록

우리 聖王萬歲스려 熙皞世界에 三代日月빛취
스려 於千萬년에 兵革을 쉬우스려 耕田鑿井에 擊
壤歌를 불리스려 이 몸은 이 江山風月에 늘 글주물
로 드로카

五倫歌

父子有親

아라느나으시고 어미는 치옵시니 天罔極이라
갑을길이어려우니 大舜의 終身誠孝도 못다한가
흐노라

人生百歲中에 疾病이다 이시니 父母를 섬기다 못

히든심근년고아마도못다할誠孝를일즉어러보
뎡로라

父母심기기를至誠으로심기리라鷄鳴에盥漱하
고燠寒을못조오며날마다侍側奉養을沒身不衰
하오리라

世上사람들이父母恩德아는산다父母곳아니면
이몸이그실소냐生死葬祭의禮로배終始가게심
겨서라

三千罪惡中에不孝에더니업다夫子의이말을萬
古에大法삼아아모려下愚不移도밋처알게하뎡

卷之三
三

으르노라

深山の밤이드니北風이더욱차다玉樓高處에드
이브름부는게오긴박의치수신가北斗비겨바귀
로라

이몸이죽은後에忠誠이낙시되야높이높히노라
은라閻闔을늘너열고上帝쉬우리 聖主는壽萬
歲귀비로미라

夫婦有別

夫婦이이先後에父子兄弟삼겨시니夫婦고아니
면五倫이가즐소냐이中에生民이비릇하니夫婦

크다흐로라

사람내실적의夫婦스게삼겨시니天定配匹이라
夫婦스치重흐스나百年을아적삼아如鼓瑟琴
엇로라

夫婦을重타흐든情안重게가질것가禮別업시居
處호여恭敬업시조흐스나一生에敬待如賓을冀
缺갓치호오미라

夫婦삼길적의하重게삼겨시니夫唱婦隨호야一
家天地和호미라남마다舉顔齊眉을孟光스게호
여라

남으로 삼긴 거시夫婦又치重한 년가 사람의 百福
이夫婦에 가갓거 든이리重한 소이에 아니 和코 잇
지하리

兄弟有愛

兄弟내실적의同氣로삼거시니骨肉至親이兄弟
又치重한 년가一生애友愛之情을한몸又치하리
타

爭財에失性하야同氣不睦마라스라田地와奴婢
는갑슬주면살면이와아모터萬金인들兄弟살디
잇나

友愛를尤篤하야百年을흐티살며흐옷흐밥을논
하담고논하먹고白髮애아위줄모르도묵흠그늘
자하노라

同氣로셋몸되야흐몸가치지니다가두아은어티
가셔도라을줄모르노고날마다夕陽門外에한숨
계위하노라

友愛심흔드지表裏업시흐뜻되야이中에和兄弟
를우린가너겨너넋지라白首隻鴈이혼자을줄
알리오

朋友有信

벗을 사필 단 단 有 信 則 事 可 成 矣 信 則 事 可 成 矣 恭
敬 則 事 可 成 矣 一 生 而 敬 之 則 始 終 一 心 也
오리라

言 忠 行 篤 則 事 可 成 矣 言 忠 行 篤 則 事 可 成 矣 言 忠 行 篤 則 事 可 成 矣
외 다 하 미 적 거 이 와 진 실 로 삼 가 지 못 하 면 辱 及 其

親 乎 오리라

三章 缺

總論

天地間萬物中에 사물이 最 貴 乎 人 最 貴 乎 人 五
倫이 아 니 온 가 사 롬 이 五 倫 을 모 르 면 不 遠 禽 獸
리라

幸茲東爨心千古今업시다이심시爰輯舊聞하야
二三篇지어시니嗟哉後生들아살피보고힘션하
라
仔細히살피보면뉘아니感激하리文字는拙하되
誠敬을삭여시니진실로熟讀詳味하면不無一助
하리라

辛酉秋與鄭寒岡浴于蔚山椒井

神農氏모로藥을이椒井의숨겨던가秋陽이倒오
는디물속의잠겨시니曾點의浴沂氣像을오늘다
시본듯하다

紅塵에 든지 업쉬斯文을닐을삼아繼往開來하야
吾道을닐키사니千載後晦菴先生을다시본듯하
여라

立巖

時旅軒張先生寓居本郡北立巖公嘗從遊代旅軒作此歌

無情히사는바회有情하야보이느다最靈호吾人
도直立不倚어렵거늘萬古애곳게선저일구리고
칠적이업느다

江頭에屹호하니仰之에티옥높다風霜애不變하
니鑽之에티옥긋다사람도이바회호면大丈夫
山가호노라

卓然直立하니 法바담즉하니 마는 구름 깊은 峽中
에 알리잇사 走자우탁 努力躋攀하니 奇觀이야 만
하니라

精舍

草屋 두세間을 巖穴에 부쳐 두고 松竹 두 빛치 病目
애익어 시니 이 중에 春去秋來 木아므젠 蟲모르도
다

起予巖

夫子의 起予者는 商也라 드러더니 오늘 起予者는
말업소 會 회모다 어리고 鄙 寒 飢 미암이 絶로 새물

고다

戒懼臺

戒懼臺을라오니문득절로戰兢하다臺上에살피
보더이곳치저흠거든못보고못드는싸히야아니
살가엇지하리

吐月峰

峰頭에소스돌이이山中의비취노다九萬里長天
이멀고도높긴마는高山이抑天하니돌우흐로나
는덧다

九仞峰

巍巍九仞峰이衆山中에秀異코아下學二程이
이山하기갓건아는엇디타이제爲山은功與一於眞
하느게오

小魯岑

南魯岑이일흙을누라서지은게오夫子臨도이
東山아니런가萬古靑山이只麼히놓하시라아도
딘즐모르도다

避世臺

名利에든지업서비오시막디심고訪水크동산하의
避世臺에드러오니어즈버武陵桃源도여그대가

호로라

合流臺

合流臺는 민물이 보기에 有術하다 彼此 업시 흠러
가고 左右에 逢源하니 分時 異處 同을 이 臺下에
아라 묘야

尋真洞

尋真洞는 린물이 巖下에 구비되니 不舎 晝夜 호야
亭子 압히 드러 오니 어즈니 洛水 夢川 은 다 시 본 듯
호여나

採藥洞

솔밭의 아히들아네 얼은어디 가노藥지더
하마도타오렷마는山中에 구름이 겁후년
라하노라

浴鶴潭

浴鶴潭 물근물에鶴을조차沐浴하고訪花
야興을트고도타오니아우려風乎舞雲
들블을일이이시략

數魚淵

淵泉이하말그니가노고기다보닌다
나나치헤리로다童子야새글에고기
다지하

보아라

향음玉橋

磯頭에 누엇다가 쉬드라니 돛이 불다 靑叅杖 빛기
짐고 玉橋를 건너오니 玉橋애 물근 소리 들자 새
만아 늦다

釣月灘

낙대를 빛기 쥐고 釣月灘 바라느러 불근 역귀 헤쳐
너고 들알의 안근 시너아 모려 桐江興味 산 들 불을
주리 이시랴

耕雲野

沮溺의 가던 밭치 千年을 묵어 거늘 구름을 허허드
러 두세이 령 가라 두고生涯를足다 사흔 가마는 부
를 거스림노 왜라

停雲嶺

停雲嶺이라 노니 天中에 두텃피야 陟彼崔嵬호면
五雲蓬萊보면 마는 病目애 눈물이 열히나 바리보
기아 두하다

産芝嶺

産芝嶺은 나오니 一身이 香氣통다 四皓 商山도이
芝嶺아니런가 山路애 구름이 깃흐나 아모딘 줄모

근로다

隔塵嶺

隔塵嶺하늘흐니紅塵이어더간다
고드이먹은귀
깃승스득먹어가니山밖괴
是是非非를듯도보도
못言로다

畫裏臺

江上山누린곳하솔아리니
분돈해翠嵐丹霞
疊疊이들러시니어즈버
雲母屏風을그그린듯하여
라

思親

霜露既降兮
니 불기도悽愴코야
이 옷시 열다
하야
치위적허그리
하야
一生에
永慕
方寸의
근두
느겨
하로라

慕賢

반가온샤
오늘
힘에
首陽
隱士
보완
제고
正色
欸然
하
고
날
드려
하
는
말
슴
至今
에
叩馬
하
던
忠義
를
못
니
이
적
하
더
라

泪
灑
는
린
물
이
靈
均
의
怨
淚
로
다
為
國
忠
憤
을
보
시
라
도
못
내
이
적
至
今
에
嗚
咽
波
聲
이
어
제
문
듯
하
얏
나
다

蘆洲幽居

어화아희들아후리치고가자스라田園이뷔엇거
니잇지아니가모소나道川上明月清風이날기드
디기오리나라

自警言

明鏡에희씨기던갑주고닷글줄아희어문업시다
밋쳐알건마노감업시닷글明德을닷글줄을글모르
는다

誠意關도박드러八德門비라보너크나크호길이
넘고도곳다마노엇지라盡日行人이노도가도아

난계호

九仞山간솔배허濟世舟를모아너야
가늘근行人
을다견너려호엇더니사공도無狀호
야暮江頭에
부러나타

陶山歌

在禮安陶山即退溪李先生書院也公往祭賜祭丙作此歌

太白山나린龍의靈芝山이노과
세라黃池로호
물너洛川이말가세라退溪水도라드려
溫溪村에
터오니老松亭에집터의大賢이
나게시타一區陶
山이그것되名勝地에호
흥다우리先生이
其의藏
修호나當年의杖履所호
後世에俎豆所에
年末後

學의隣邑의生長을야門庭은吳의처도江山은咫尺
이라遺書을誦讀을古風을想像을야百里煙霞
예指點을고오려려의壬子年春三月의聖上의恩
典으로禮官의命을바다廟下의致祭을고多士을
畜의모卦別科을보히시니어卦 聖恩의야가지
무同極을야嶠南七十州의누이이興起을리書話
을답히의고章甫의뒤을바다享禮을象禮을고詩
卷을마치後의隴雲亭으로올나巖西軒에서가나
門前의值平床은文席의依依을고几中의靑藜杖
은手澤의班班이라羹藜을비삼고敬言咳을吳松

조조心神이滿然호니鄙吝이전로입다玩樂齋時
習齋外果蘭軒至蕭廬의靜宇堂節友舍을次次로
다본후이蒙泉水何마시고由正門다시나외峒口
巖더딘길로重影臺을나산자遠江山을一眼의
구이보니東翠屏西翠屏은峰巒도奇秀호고圻景
榻半隱石은氷石도明麗호다金沙玉鑠은面面히
前이호고碧桃紅杏은處處의자자히龍門八尺
은보든吳女여시나武夷九曲은들이예세디홀소
가西臺은다본후이東臺이은나산자上下을살피
보니일호문조다天淵臺의雲間이저소리기너호어

이날시며江中이적의기야너는어니워노년다수
리 聖主壽考方外作人方外餘化로다形容잘호
活潑潑地費隱章이더기로다滄江이달리듬이夜
色이명옥조다師工은로리짓고童子은술을부이
上流이미인비을下流이든위노但初更이머근수
리三更이다취호니興味는滔滔호고風流는蕭蕭
로다그례야고치안자瑤琴을비겨안고冷冷호호
曲調을즐즐이큰외니야清涼山六六歌을漁父辭
로和答호호니이리조호無限景을桃花白鷗비호호
야春風舞雩이더런고秋月寒潭비취호호十八首





